국립의대 설립·민간-군공항 이전·전남특별자치도 설립

김영록 지사, 후반기 3대 과제 집중

전남관광·정책비전투어 등도 제시

김영록 전남지사가 민선 8기 후반기 과제를 '국립의대 설립', '광주 민간-군공항 동시 이전',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 3가지로 압축했다.

김 지사는 이들 핵심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정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5일 오전 도청 왕인실에서 열린 6월 정례조회를 통해 "정부합동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는 등 지난 2년 전국에서 가장 탁월한 행정력을 인정받았다"며 "이를 바탕으로 민선 8기 후반기 추진할 중차대한 핵심 과제 해결에 힘을 모으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국립의대와 관련해 "정부로부터 신설 방침이 정해졌으나 의료계 동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정치권과 도민의 총의를 모아 끝까지 쟁취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공모 추천 방식을 추진해 10월 말이면 정부에 추천 대학을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전처럼 대학이 각자 교육부에 신청하면 삼척동자가 봐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다"며 최근 순천의 공모 불참 방침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한 뒤 "공모에 모두 참여해 결과에 승복하고, 정부에 한 목소리로 강력하게 요청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광주시가 광주 민간·군 공항 동시 무안 이전을 위해 무안군민 설득에 나선 일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김 지사는 "군공항 이전이 필요한 광주시와 정부가 소음피해 등 문제의 정책대안을 확실히 마련해 군민을 설득하면 해결될 것이라 믿는다"며 "전남도는 무안 3조원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였고, 무안군과 광주시의 중재자로서, 또한 전남도민을 위한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특별자치도의 추진에 대해서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특별자치도'를 통해 중앙권한 가운데 필요한 것을 투쟁을 통해서라도 맞춤형으로 이양받고, 재정 인센티브도 추가로 이끌어내 전남부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이외에도 ▲전남관광 세계화 ▲정책비전투어 등을 핵심 현안으로 제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대한민국을 지킨 희생을 기억합니다' 제69회 현충일 추념식이 6일 오전 광주 남구 광주공원 현충탑에서 열렸다.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참석자들과 함께 현충의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청년드림주택 허위광고 속지마세요"

광주시 사칭 청년정책 허위광고 주의…누리집서 반드시 확인

광주시를 사칭하고, 청년 정책으로 오인을 유도하는 청년 임대 주택 광고가 나돌아 주의가 요구된다.

6일 광주시에 따르면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광주광역시 청년 드림주택 입주자 1기 모집' 등 문구를 담은 광고가 게재됐다.

광고는 지원 대상, 근로 여부, 선정 인원 등 내용을 담아 마치 광주시가 추진하는 공공임대 정책인 것처럼 오인할 소지가 있어 보인다.

광주시는 임대 업자가 임차인을 모집하려고 시 정책을 사칭한 광고를 게시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작성자 등을 파악하고 있다.

청년 정책 플랫폼에 문자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지역 청년 2만 6000여명에게 허위 광고에 주의해달라는 문자메시지도 발송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실린 '광주광역시 청년 드림주택'은 광주시 사업이 아니다"며 "시와 정부의 청년정책 명칭에 '드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접수 및 조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로 최종 결정되면, 경·공매 절차 지원, 금융 및 주거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과 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등을 시행하고, 광주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일정요건 충족 시 이사비와 월세 지원, 이자 지원 등에 나서고 있다.

또 계약기간 만료 세대에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신청' 상담·안내와 법률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시, 광주지방변호사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연계해 무료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푸틴 "한국과 관계 회복할 준비 되어 있다"

한러관계 의지 보여…우크라에 무기 직접 공급 않는 결정 높이 평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5일(현지시간) 한국과 관계를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언급은 러시아 측의 '레드라인'(마지노선)을 명확히 하면서 동시에 양국관계 관리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세계 주요 뉴스통신사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러관계에 대한 연합뉴스 질의에 "한국이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에 무기를 직접 공급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무역과 경제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중략) 미래에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인적·물적 교류가 이어지고, 이에 대응해 최근 한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개인·선박에 독자 제재를 내놓는 등 갈등 요소가 여전한데도 푸틴 대통령이 한국에 대해 진전된 발언을 내놓은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이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한 데 더해 우크라이나 무기 공급을 둘러싼 긴장까지 고조되면서 양국 관계는 냉각되어 왔다.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의 언급은 결국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직접 살상무기를 공급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이것이 러시아 측의 '레드라인'임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일단은 현상 유지에 초점을 맞추되, 향후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따라 한러 관계 개선을 시도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즉, 푸틴 대통령의 이날 언급은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직접 제공하지 않고, 러시아는 우리가 우려하는 핵심 군사기술을 북한에 이전하지 않는 '레드라인'을 양측이 지키며 관계를 관리하는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연합뉴스

진도 조도 해역에 어린 꽃게 150만 마리 방류

전남해양수산과학원, 생산량 증가·어업인 소득 증대 기여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진도지원이 어선어업 주요 소득품종인 어린 꽃게 150만 마리를 지난 4일 진도 조도 해역에 방류했다.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은 꽃게 어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어린 꽃게를 자체 생산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05만 마리를 방류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 진도군 꽃게 생산량은 연간 1000t 내외로 비교적 안정적 어획이 이뤄지고 있다. 생산액은 지난해 처음으로 200억원을 달성했다.

특히 이번에 방류한 어린 꽃게 양은 지난해(75만 마리)의 2배이며, 방류 시기도 6월 초로 한 달 앞당겼다. 이는 진도 꽃게 어업인이 지난해 열린 간담회에서 건의한데 따른 것이다.

이번 방류로 어획량 증가와 어업인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충남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장은 "기후변화 등 영향으로 수산 자원량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어 방류에 대한 어업인 요구와 기대가 크다"며 "앞으로도 어선어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방류사업을 확대하고 효과분석 등을 통해 전남 해역 수산 자원 증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SINCE 1952

광주·전남 온라인 일자리박람회

10~30일…150여개 기업 참여

'2024 상반기 광주·전남 합동 온라인 일자리박람회'가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일자리 잡고! 희망 JOB GO!'라는 주제로 열린다.

이번 온라인 박람회는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주최하고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과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이 공동 주관해 마련됐다.

광주·전남 15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80명 취업 연계를 목표로 진행된다. 참가를 바라는 기업과 구직자는 박람회 누리집에 신청하면 되고 전남일자리종합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온라인 일자리 박람회를 통해 구직자에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 인재를 공급, 지역 고용 안정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탈북민단체 "애드벌룬 이용 대북전단 20만장 살포"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6일 이른 시간에 대북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 박상학 대표는 "경기도 포천에서 이날 오전 0~1시 사이에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대북전단 20만장을 살포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애드벌룬에 대북전단과 함께 트로트 음악 등을 저장한 USB 등도 함께 넣었다고 전했다. 대북전단 살포 과정에서 경찰 측의 제지 등은 없었다고 박 대표는 덧붙였다.

이 단체는 지난달 10일에도 전단 30만장과 K팝·트로트 동영상 등을 저장한 USB 2천 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에 날려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해왔다.

그동안 대북 전단에 예민하게 반응해온 북한은 지난달 26일 대북 전단에 맞대응하겠다며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곧 한국 국경 지역과 종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라고 위협하고 이틀 뒤부터 1천개 가까운 오물 풍선을 남측에 날려 보냈으며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 등 복합도발을 연쇄적으로 감행했다.

그러나 정부가 '감내하기 힘든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경고한 직후 북한은 지난 2일 밤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내고 오물 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당시 북한은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백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며 조건부로 위협했기 때문에 이번 대북 전단 추가 살포에 북한이 추가로 맞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합뉴스

신안군 공고 제2024-691호

신안 해송 해상풍력1,3 발전사업(발전단지~육상변전소 구간)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신안 해송 해상풍력1,3 발전사업(발전단지~육상변전소 구간)"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신안군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신안 해송 해상풍력1,3 발전사업(발전단지~육상변전소 구간)
나. 위 치 : 전라남도 신안군 서남측 약 84~92㎞ 공유수면 일원(발전단지)~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신설 육상변전소)
다. 규 모 : 1,008MW(504MW×2개단지), 송전선로(해상 및 육상) 및 육상변전소
라. 사업시행자 : ㈜해송해상풍력발전1, ㈜해송해상풍력발전3
마. 승 인 기 관 : 산업통상자원부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 람 기 간 : 2024년 06월 07일~07월 08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1일간)
나. 공 람 장 소 : 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과, 흑산면사무소, 해남군청 경제산업과, 문내면·화원면 사무소, 진도군청 환경수질과, 진도읍 행정복지센터, 군내면·지산면사무소
다. 공 람 내 용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요약서는 공람장소,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서 열람 가능

3. 주민설명회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시	장소
신안군	2024.06.24 13:30	흑산면사무소 2층 회의실
해남군	2024.06.21 14:00	화원면사무소 2층 회의실
	2024.06.27 14:00	문내면사무소 2층 회의실
진도군	2024.06.18 14:00	진도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4.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가. 제 출 기 간 :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2024년 07월 15일 까지)
나. 제 출 방 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다. 제 출 내 용 :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

5. 기타
• 자세한 사항은 신안군청 신재생에너지과(☎ 061-240-544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남군 공고 제2024-1525호

신안 해송 해상풍력1,3 발전사업(육상부 345kV 송전선로 구간)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신안 해송 해상풍력1,3 발전사업(육상부 345kV 송전선로 구간)"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해남군수

1. 사업의 개요
가. 사 업 명 : 신안 해송 해상풍력1,3 발전사업(육상부 345kV 송전선로 구간)
나. 위 치 :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신설 육상변전소) ~ 전라남도 강진군 성전면 (기설 345kV 한국전력공사 신강진변전소)
다. 규 모 : 약 52㎞(가공선로, 신설 147기)
라. 사업시행자 : ㈜해송해상풍력발전1, ㈜해송해상풍력발전3
마. 승 인 기 관 : 산업통상자원부

2.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기간 및 장소
가. 공 람 기 간 : 2024년 06월 07일~07월 08일(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21일간)
나. 공 람 장 소 : 해남군청 경제산업과, 문내면·화원면·산이면·마산면·계곡면사무소, 영암군청 일자리경제과, 미암면·학산면 행정복지센터, 강진군청 민원봉사과, 작천면·성전면사무소, 진도군청 환경수질과, 진도읍 행정복지센터, 군내면·지산면사무소
다. 공 람 내 용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요약서는 공람장소,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www.eiass.go.kr)에서 열람 가능

3. 주민설명회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시	장소	일시	장소
해남군	2024.06.14 10:30	마산면사무소 2층 회의실	2024.06.21 14:00	화원면사무소 2층 회의실
	2024.06.27 10:00	계곡면사무소 2층 회의실	2024.06.27 14:00	문내면사무소 2층 회의실
강진군	2024.06.20 10:00	성전면사무소 2층 회의실	2024.06.20 14:00	작천면사무소 2층 회의실
진도군	2024.06.18 14:00	진도읍 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	–	
영암군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주민설명회 개최 전 별도 공고 예정			

4.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가. 제 출 기 간 :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2024년 07월 15일 까지)
나. 제 출 방 법 : 공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 제출서 양식에 의거 서면제출
다. 제 출 내 용 : 사업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

5. 기타
• 자세한 사항은 해남군청 경제산업과(☎ 061-530-58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빛해상풍력(주)

영광 한빛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청회 개최 공고

「환경영향평가법」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영광 한빛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청회(2차) 개최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한빛해상풍력(주) 대표이사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명 : 영광 한빛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나. 위 치 : 전라남도 영광군 낙월면 안마도 및 송이도 인근 해역 일원
다. 사업시행자 : 한빛해상풍력(주)
라. 승인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마. 사업규모 : 발전용량 총 340MW(13.6MW × 25기)

2. 공청회(2차) 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2024년 6월 24일(월요일) 오전 11시	영광군 예술의전당(소공연장)

3. 기타사항
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주민은 의견진술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2차) 개최일 7일 전까지 의견진술자 추천서를 영광군청 해양수산과(☎061-350-5412)에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빛해상풍력(주)(☎061-872-80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합병공고
(주권제출 및 채권자이의제출)

대아산업 주식회사(이하 갑)와 대아에너지 주식회사(이하 을)는 2024년 6월 5일 합병승인 주주총회결의를 통해 갑은 존속하고 을은 해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공고게재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을의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고, 갑과 을회사의 채권자는 각 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6월 7일

"갑" 대아산업 주식회사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앙로 24
대표이사 고 창 회

"을" 대아에너지 주식회사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대불산단6로 296
대표이사 고 창 회

분할합병공고
(채권자 이의 및 주권제출공고)

주식회사 삼광전기(이하"갑"이라함)와 주식회사 우영전기(이하"을"이라함)는 각각 2024년 06월 05일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1 규정에 따라 "갑"의 그 재산 (영업)의 일부인 전기공사업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과 "을"이 합병하고 "갑"은 존속하기로 하였으며,"갑"의 분할된 전기공사업의 재산, 부채등"갑"의 전기공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는"을"이 승계하며 상법 제530조의9 제3항의 의거 분할된 재산만을 출자금으로 인정하고 "을"은 출자받은 출자재산 이외의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결의하였는바, 이 분할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일 익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고 주주는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의가 없으면 분할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함을 공고 및 최고합니다.

2024년 6월 7일

"갑" 주식회사 삼광전기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로 8번길 50(송정동)
사내이사 유 근 우

"을" 주식회사 우영전기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621번길 5(소촌동)
대표이사 서 일 순